‘예술적 삶 발현하는 문화플랫폼’

야호학교, 팔복예술공장과의 협업 ‘비상 프로젝트’ 3기 종료식 성료
김성수 작가와 함께 제작한 ‘나의 유년시절’ 주제 공동 작품 전시

전주형 창의교육모델인 야호학교의 청소년들이 예술작가와 함께 만든 예술작품이 팔복예술공장에 전시된다.

전주시는 17일 팔복예술공장에서 야호학교 청소년과 학부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수 작가와 함께 제작한 ‘나의 유년시절’이라는 공동 작품을 설치 및 전시하는 것으로 ‘제3기 예술 비상 프로젝트’ 종료식을 개최했다. 예술 비상 프로젝트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야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전주시가 야호학교와 팔복예술공장 학교 밖 예술놀이터와 협력해 청소년과 지역에서 활동중인 작가가 함께 예술작품을 만들고, 공동 제작한 작품을 팔복예술공장에 전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날 프로젝트 종료식 행사는 야호학교 청소년들이 팀별로 제작한 작품에 대한 설명과 경험담을 나누고, 이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야호학교 청소년들은 지난 1일에서 17일까지 김성수 작가와 함께 총 8회, 24시간 동안 유년시절의 추억과 기억이 담긴 사진 등을 활용해 조형작품을 제작하고, 팔복예술공장 한 켠을 전시공간으로 만드는 활동을 진행했다.

세부적으로 ‘유년기억×놀이터’의 주제로 △입체조형+스토리텔링 이미지 발굴·구성하기 △이미지 브리핑 및 작품설치 공간 탐방 △조형작품 설계도 그리기 △모형만들기 △작품전시회 등으로 운영됐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완성된 공동 작품 성과물은 팔복예술공장 B동에 상시 전시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청소년들이 직접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행복한 삶의 기술을 배워 미래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전주형 창의교육 모델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예술작품을 만드는 과정과 소재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예술가들에 대한 존경심을 느끼게 됐다”면서 “또한 협동심을 필요로 하는 활동이다 보니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매년 야호학교와 팔복예술공장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비상 프로젝트의 인식과 참여율이 향상되고 있어 매우 기쁘고, 새로운 예술적 삶을 발현하는 문화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내년에는 문화예술에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참여가 주어지길 바라며, 더욱 비상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익산예술의전당서 오는 24일 ‘낙樂, 락樂 오브 재즈 칸타빌레’를 공연한다.

익산예술의전당서 ‘낙樂, 락樂 오브 재즈 칸타빌레’ 공연

익산예술의전당은 가수 정동하와 싱어송라이터 안예은, 국악과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크로스오버콘서트인 ‘낙樂, 락樂 오브 재즈 칸타빌레’를 오는 24일 오후 7시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유자 정동하와 개성 넘치는 싱어송라이터 안예은, 지휘자 최영선이 이끄는 아르스오케스트라와 한국의 전통 감성을 연주하는 타악 그룹인 소나기프로젝트가 함께 참여해 동서양을 아우르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뜨거운 여름더위를 한꺼번에 날려줄 이번 공연에서는 프론티어, 상사화, 봄이 온다면, 생각이나 등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남녀노소 누구나 흥겹게 즐길 수 있는 가슴 벅찬 시간으로 채울 예정이다. 공연 관람은 8세 이상 가능하며 관람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이다. 홈페이지 회원은 30% 할인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전화(063-859-325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하며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돼 익산예술의전당과 아르스프로덕션이 주관한다.

/익산=장인천 기자

임실군 농악협의회가 최근 강진면 풍물관 야외 공연장에서 양진성 회장의 지도를 받았다.

임실군농악협의회, 호남 좌도농악 저변 확대 ‘온힘’

임실군 농악협의회(회장 이강욱)에서는 최근 강진면 풍물관 야외 공연장에서 양진성 회장(필봉농악보존회)의 지도를 받았다.

이번 교육은 호남 좌도농악을 계승 발전시키고 읍면농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단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임실군 읍면농악협의회는 5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달 정기적으로 각 읍면을 순회하며 연합강습회를 운영 중이다.

또한 수시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길놀이 행사 및 공연들을 개최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즐기는 연합단체로 지역사회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강욱 농악협의회장은 “호남좌도농악은 한국농악이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와 형태를 잘 이어오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며, “함께 나누고 어우러지는 공동체 문화를 일군 호남좌도농악을 통해 올 한해 모두가 풍요와 평안을 기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마술같은 미술 퍼포먼스 부안에 오다

부안예술회관서 내달 6일 기획공연 ‘페인터즈’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 기원 기획공연 ‘페인터즈’ 공연을 오는 9월 6일 오후 7시 30분에 부안예술회관 2층 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간 관객 100만명 돌파, 3년연속 관람객수 1위, 누적공연횟수 1만5000회, 총500만면 관람, 전세계 19개국 122개 도시 공연, 세계로 퍼져나가는 극찬 릴레이를 받고있는 ‘페인터즈’의 주제는 말 그대로 ‘영웅’이다. 마이클 잭슨, 이소룡 등 누구나 알만한 세계 각국의 영웅들이 각기 다른 10가지 미술기법(액션페인팅, 스크래치, 마블링, 스탠실, 크로키드로잉 등)을 통해 무대에서 재 탄생된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재미와 감동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찬 공연이라는 찬사로 K-퍼포먼스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있는 페인터즈가 부안에 와서 멋진 공연을 펼쳐줄 것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공연내내 쉴 새 없이 ‘거듭되는 기발한 반전’은 관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전해 줄 것이라며 많은 군민들께서 오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관람료는 전석 5000원으로 전연령 입장가능하며 티켓은 19일 9시부터 티켓링크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부안=김석진 기자